

구 대한통운 부지, 교통대란 우려

주상복합건물 건축 예정... 전주역 광장교차로 근접 차량 진출입 어려워

전주역 인근 구 대한통운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예정되면서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역 앞 백제대로와 동부간선대로 교차로는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돼 있고 사업부지 맞은 편에는 예식장 2곳이 위치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역 인근 구 대한통운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35층 규모(4개 동)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계획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374세대와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연면적 6만6,340.53㎡ 규모로 주차 521면과 진출입로 1곳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8일 해당 계획

안을 심의한 전주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보완을 요청했다. 사업부지가 전주역 광장교차로에 근접해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계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부지와 연결되는 동부간선도로 구간은 이미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전주시가 생태도로를 조성하겠다는 마중길 사업의 시작점에 위치해 있다.

마중길 사업이 완공될 경우 주변의 차량이 줄어 출퇴근길 정체는 물론 예식장의 진입과 주차문제로 차량흐름이 현재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전문가는 "이미 전주지역 예식장 등 대로에 인접한 교통유발시설로 인한 불편함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며 "전주역 주변

발전과 건물의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주역과 동부간선도로에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교통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상복합건물 건축으로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첫 마중길 생태도로 계획에 부정적 효과를 주고 시민들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그 이상이 될 것"이라며 "주상복합빌딩 등은 전주역사 전면 개선에 적합한 건물디자인으로 검토해야 하고 전주우아공공의 재건축에 따른 인구집중 및 교통문제 등을 포함한 전주역 주변의 종합적인 분석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통영향평가위는 1차 심의에서 사업부지의 진출입로 설치 계획을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교통흐름에 영향이 없도록 동부간선대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진입로와 출입로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감속차로 확보 등을 전달했다.

하지만 제시된 방안으로 진출입로를 개설할 경우 건축면적이 축소될 수 있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해당 사업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진출입로를 분리하는 것이 교통흐름에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전주시 관계자들과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평가위에서 제시한 방안을 그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이나 2차 심의에 제출할 방안은 기존 건축 계획 면적과 큰 차이는 없다"며 "결과에 따라 추가 방안 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2차 교통환경영향평가는 오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전북경제 활력제고 위해 힘차게 뛰다

새해설계...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의 2017년 새해 각오가 비장하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너무 어려워 어깨를 짓누르는 중압감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인들이 느끼는 현재 경제상황은 20년전의 IMF외환위기와 같고, 5년내 최악이라는 신음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극 매진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전주상공회의소가 앞장서 나가겠다는 각오다.

지역현안과 관련해 이회장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U-20 월드컵 대회의 성공개최가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추진,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통한 전북금융타운 조성 등 지역발전의 성공을 가능케 하는 현안에도 지자체,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의 핵심추진 사항인 회관신축과 관련하여 "지역 상공인의 오랜 숙원인 신축사업이 내년 말 완공될 계획"이라며 "사육조성을 계기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전북경제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사회적 지위를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적

을 위한 "기업인들은 불경기라 하여 움츠러들지 말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바다에서 폭풍을 만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지금의 내우외환을 잘 견뎌내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새해에는 경영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해소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기업사랑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기업의 사회적 지위를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적

전북농협 지자체협력사업, 농업농촌 숙원사업 해결 기여

농협자금 125억원 지원... 농촌 활력·농가소득 기여

전북농협이 추진하는 지자체협력사업이 농업농촌 숙원사업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협력사업은 농촌활력화와 지속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농협자금을 직접 투입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의 활력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전북농협은 올해 전북도와 14개 시군과 함께 농업농촌 실익사업 102개 사업을 발굴해 지자체협력사업으로 125억을 지원했다.

2015년 96건 87억원에 비해 38%가(143%증가) 증가한 것으로 각 시군의 산지영농기반 확충과 지속적인 영농을 위한 숙원사업 해결에 큰 효과를 내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전북도와 함께 6차산업화 및 통합마케팅 상품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도내 농산물 판매증진과 통합마케팅 참여농가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소규모 영세농가의 비가림 하우스 설치(남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원주) 및 비 수확용 톨백 지원(부안)을 통한 강소농 육성에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는 스톱샵 사업(전주, 익산, 군산)을 통해 도시농업 환경 기반 구축에 힘썼고 농촌지역에서 작은 목욕탕 사업(순창, 임실, 진안) 및 농촌지역공동생활 시설에 예산 지원(무주) 등의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농협 희망 2020 비전선포식

향상에 노력을 했다.

전북농협 강태호 본부장은 "지자체 협력사업은 사업의 성과를 다수가 누리거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우선지원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사업과 소득원을 발굴해 농업농촌 기반을 확대하고 농협의 협력사업은 사업의 성과를 다수가 누리기 위한 농협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한은 전북본부, 도내 중기 설 자금 100억 지원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설을 앞두고 단기유동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100억원 한도 내에서 설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설 특별자금은 관내 금융기관 각 영업점을 통해 오는 26일까지 일체금 5억원(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이내에서 1년간 지원되며, 부동산업, 주점업, 금융 관련업 등은 제외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금 지원으로 설을 맞아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매일 www.jjmaeil.com
구독문의 288-9700

김완희 미래전략실장, LH 전북 신임 본부장 임명

LH 전북본부 신임 본부장으로 김완희 미래전략실장이 임명됐다.

김완희 신임 본부장은 전북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 한양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해 기획조정실, 금융사업처, 미래발전기획단 등 주요 부서를 거쳐 미래전략실장을 역임했다.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함께 직원과 소통을 통한 친화력이 높아 직원들 사

이에서 덕장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2월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서기식 본부장은 본사 관내보상기획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재용 기자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 농관원 이관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가 1일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된다.

지난해 12월 29일 농관원에 따르면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 위임해 인증품 관리와 함께 신속하고 종합적인 인증 품질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는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월에 업무 이관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품질인증기관 지정 관리, 시험연구기관 지정 관리, 공시·품질인증품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한 사후관

리를 하게 된다.

농관원은 공시, 품질인증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 관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통해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사후관리 및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사무소와 민간인증기관을 활용해 불량제품 정보를 유통업체와 인증농가에게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불량제품 사용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남태현 원장은 "유기농업자재 관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전국적인 조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철저한 사후 관리로 불량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真心
홍삼주